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이 범주간/범주내 정보의 회상에 미치는 효과

이 해 경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육학부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이 범주간/범주내 정보의 회상에서 성고정관념적 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성역할 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이 비맥락화된 지각보다 정보의 회상에서 성고정관념 처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이 시행되었다. 실험1에서는 가상적인 두개의 성유사범주(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를 사용하였고, 실험 2에서는 중립적 특성을 사용한 가상범주를 사용하여 성역할관계에 몰입하도록 처치한 성역할맥락화조건과 특정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비맥락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였다. 성고정관념 처리 정도는 범주간 정보와 범주내 정보의 회상에서 일어나는 오류량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1, 2 모두에서 첫째,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정보의 회상에 있어서 성고정관념적 처리(범주간 정보회상 오류는 감소하고 범주내 정보회상 오류는 증가)가 증가하였다. 둘째,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이 성범주와 관련차원(기능과 친화특성)이 비관련차원(중립특성)에서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성고정관념적 처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Katz와 Braly(1933)의 첫 연구 이래로 사회심리학에서는 고정관념의 원인과 효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과거 사회심리학에서 접근되어온 연구의 방향은 크게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자 한 '과정(process) 연구'들과 특정 고정관념의 내용이 어디서 기원하

였는지를 밝히는 '내용 기원(content origin) 연구'들로 대별될 수 있다(Oakes, Haslam, & Turner, 1994).

전자의 연구로서 최근까지 가장 체계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Tajfel의 범주화이론이다(Tajfel, 1959). Tajfel은 대상을 범주화

하게 되면 동화와 대비라는 강조(accentuation)현상 때문에 고정관념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상을 범주화하게 되면 범주간에서는 두 범주의 차이점이 강조되는 대비효과가 일어나는 반면에 범주내에서는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범주화에서 나타나는 동화와 대비현상은 Tajfel과 Wilkes(1963)의 선분길이추정과정으로 실제 검증된 바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동화 효과는 유의하지 못했지만 대비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그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Tajfel의 이론에 따르면 대상을 단순히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주간 차이가 강조되는 대비와 범주내 차이가 무시되는 동화로 인해 고정관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Tajfel의 범주화이론은 오늘날까지도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남녀 대상을 범주화하는 것이 어떻게 남자는 용감하다, 여자는 부드럽다와 같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지, 성고정관념의 내용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범주화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이 용감하다와 부드럽다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형성된 기원은 설명하기 어렵다.

Tajfel의 범주화이론과 같이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들과 달리 고정관념의 내용기원을 설명하는 관점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남자는 가정외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직업역할을 수

행해온 반면에 여자는 주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이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남자는 주로 직업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감하다와 같은 주도적(agentic) 특성을, 반면에 여자는 가사와 육이를 위해 부드럽다와 같은 친화적(communal)특성이 요구되었다. 이런 남녀의 전통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곧 남녀의 특성으로 지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가정들은 그들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흑인, 유태인과 같은 특정 인종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맡은 사회적 역할(노예, 피지배계층)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는 고정관념의 내용에 관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Feldman, 1972; Smedly & Bayton, 1978; Triandis, 1977).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은 성고정관념의 원인이 전통적인 성역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남자들은 용감하다는 특성 외에 부드럽다 등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여자들은 부드럽다는 특성 외에 용감하다 등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성고정관념이 성역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남자와 여자의 많은 특성중에서도 남자에서는 용감하다는 특성이, 여자에게는 부드럽다는 특성이 선택적으로 지각되었는가? 이들의 주장은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처음 형성되게 된 과정과 그 기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수원(1994)의 역할맥락화이론(role-contextualization theory)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은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을 할 때 역할기대와 일치된 특성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실제 이해경(1998)의 연구결과에서 역할맥락화 이론의 이런 가설들이 지지된바 있다. 이

해경의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은 성역할 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흑인과 백인의 인종고정관념의 내용은 과거 흑인과 백인의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가상의 두 범주(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에 특정 역할을 부여하였다. 즉, 성역할맥락화조건은 피험자들을 남편역할을 부여하거나 아내 역할을 부여하여 상호 규정된 역할관계에서 상대 역할자를 지각하도록 처치한 조건이다. 인종역할맥락화조건은 주인과 노예역할관계에서 상대역할자를 지각하도록 처치한 조건이다. 비맥락화조건은 단지 Y팀과 X팀과 같이 특정 역할관계의 맥락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집단을 범주화한 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3 실험조건을 처치한 후, 각각 상대 역할자들의 인물특성추론을 통해 고정관념의 내용을 측정하였고, 역할기대는 판단준거로 측정하였다. 인물특성추론에는 특정 고정관념 내용과 관련이 없는 중립특성,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 및 흑백인종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한 60개 특성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보다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주도적 특성과 친화적 특성)을 더 많이 추론하였다. 또한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 조건에 비해 주도성이나 친화성을 판단준거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남편과 아내라는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을 할 때 주도성 혹은 친화성이라는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아 상대 역할자의 특성중에서도 판단준거와 일치, 불일치되는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한 것이 성고정관념 내용의 기원이 된 것이라는 역할맥락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역할맥락화이론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은 남편과 아내라는 상호규정관계에서 역할관계에 몰입하였을 때(맥락화되었을 때) 역할관계에서 오는 중요한 가치 즉,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아 상대의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성고정관념의 내용기원을 단순히 사회적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역할의 관찰로 설명하는 관점(Eagly & Steffan, 1984)이나, 단순 범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Tajfel, 1959)과는 다르다. 그러나 역할맥락화이론은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처음 형성된 기원을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핵심 기제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세대에 어떻게 전이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역할맥락화이론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과 같이 성역할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단순한 설명에서 내용이 형성된 과정을 인지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내용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핵심기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내용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해경(1998)의 후속연구로서 성관련 특성의 기억과 처리에서도 역할맥락화이론의 가설이 지지될 수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게 되면 특성 정보의 기억에서도 고정관념적 처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과 비관련된 특성의 기억에서도 역할맥락화된 지각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의 처리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상호규정관계된 성역할 관계를 부여하는 성역할 맥락화조건과 대상을 단순히 범주화하는 비맥락

조건으로 각각 조작하였을 때 성고정관념적 처리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Taylor, Fiske, Etcoff 및 Ruderman (1978)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의 회상에서 보이는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으로 각각 측정하고자 하였다. Taylor 등(1978, 실험1)은 Tajfel의 범주화이론의 가정에 따라 정보의 회상에서 보이는 동화와 대비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백인피험자들에게 6명의 토론에 참가하는 화자(흑인3명, 백인3명)의 슬라이드와 함께 이들이 토론하는 녹음테이프를 들려 주었다. 15분간의 토론테이프를 들은 후에 피험자들은 토론에서 이들이 토론에서 제안한 내용목록과 6명의 참가자의 사진을 함께 제시한 후에 토론자와 제안내용을 연결하는 과제(대응과제)를 하게 하였다. 이들의 가정은 범주화가 고정관념판단 효과를 야기한다면 피험자들은 특정한 주장을 한 대상이 백인 혹은 백인(인종간 정보회상)인지는 잘 회상할 수 있으나 같은 흑인 혹은 백인인물중(인종내 정보회상) 누가 그 정보를 말했는지는 잘 회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범주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의 회상에서 보이는 인종간 정보회상에서 보이는 오류량과 인종내 정보회상에서 보이는 오류량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보회상에서 인종간 오류량(interracial error)은 대비효과에 의해 적은 반면에 인종내의 오류량(intraracial error)은 동화효과에 의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등(1978)의 연구이후로 다양한 유형의 범주화: 물리적 대상(Brewer, Weber & Carini, 1995, 실험1), 인종(Frable & Bern, 1985; 성(Miller, 1986; Taylor & Falcone, 1982), 물리적 매력(Miller, 1988), 동성/이성에

(Walker & Antaki, 1986), 학문적 지위(Arcuri, 1982)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범주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으로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을 각각 측정한 바 있다.

단순범주화조건과 역할맥락화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남녀 대상의 범주간 정보는 잘 회상하는 반면에 남녀 대상의 범주내 정보는 잘 회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정보의 회상에서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오류량이 증가한다면 고정관념적 처리를 더 많이 하는 한가지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라는 성역할에 맥락화된 조건과 단순히 범주화한 비맥락조건으로 조작하였을 때 역할맥락조건이 비맥락조건에 비해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한다면 정보의 회상에서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정관념 처리는 비관련차원(중립특성)과 관련차원(주도 가치와 친화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볼 때 Taylor 등(1978)의 연구는 실제 정보의 회상에서 고정관념 판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흑인과 백인, 인종으로 범주화한 반면에 판단차원은 비관련차원(인종과 무관한)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또한 이해경과 이수원(1996)의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성에 따라 대상을 범주화하고 판단차원은 관련차원(주도특성과 친화 특성)에서만 판단하게 하였다. 따라서 Taylor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해경과 이수원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범주와 판단차원이 상호관련될 때와 비관련될 때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역할맥락화이론에서 시사하는 바는 특정역할관계에 맥

락화된 지각은 역할에서 오는 판단준거를 자신의 준거로 삼아 내외집단을 판단하는 조망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역할맥락화된 조건에서는 비관련차원보다 성역할과 관련된 차원에서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가설들을 2개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남성과 여성범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가상범주를 사용하여 역할맥락화조건과 비맥락화조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범주화를 위해 가상범주를 사용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범주가 갖는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사용된 가상장면의 성범주조작은 Hoffman과 Hurst(1990)의 방법을 응용하였다. 이들은 가상 흑성에 사는 두 종족,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을 각각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여 각각 남성이범주 혹은 여성유사범주를 각각 조작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남녀 피험자들을 가상장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가진 성유사범주에 할당하여 단순범주화시킨 비맥락화조건과 남편과 아내라는 성역할을 부여하여 상호 규정관계에서 상대를 지각하는 성역할맥락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고자 하였다.

만약 연구 1에서 비맥락화조건보다 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 처리가 더 증가하여 역할맥락화가설이 지지되었다 하더라도 연구 1에서 사용된 성유사범주는 피험자들이 기존에 가진 성도식이 활성화한데서 나타난 효과일 수 있다. 기존의 성도식의 활성화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특징을 가지지 않은 범주를 사용하여 비맥락화와 역할맥락화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 2는 남녀 피험자를 성범주의 특징을 가지지 않은 가상종족범주(중립범주)를 사용하

여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 처리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성범주의 효과를 제거한 중립범주를 사용하더라도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보다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1

연구1에서는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특성을 가진 두 개의 가상범주, 즉, 성유사범주를 사용하여 이 범주에 단순히 할당하여 범주화한 비맥락화조건과 남편과 아내 역할을 부여한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1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는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과 비관련된 특성보다 관련된 특성에서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는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1. 피험자

H대학교 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232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20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성역할

맥락조건에는 각각 남자 50명, 여자 57명의 107명이 참가하였고, 비맥락조건에서는 남자 54명, 여자 46명의 100명이 참가하였다.

2. 설 계

본 연구의 설계는 조건(2: 성역할맥락화/비맥락화) × 성유사범주(오리엔탈족/아르크족) × 성별(2: 남자/여자)로 하였다. 비맥락화조건은 남성과 여성특징을 가진 두 개의 가상범주인 성유사범주(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에 피험자를 할당하여 단순 범주화한 조건을 말한다. 성역할맥락화조건은 가상범주로 범주화한 후, 각각 상호규정된 성역할(남편과 아내)관계에서 상대 역할자를 지각하도록 조작한 조건을 말한다.

3. 독립변인 처치

피험자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실험목적용 가상장면에서 인물들에 대한 ‘당신의 인물과약능력 테스트 게임’이라고 간단히 소개하였다. 연구 목적을 소개한 뒤 실험조건에 따라 4종류의 시나리오와 지시문이 함께 인쇄된 유인물을 각 조건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각각 읽게 하여 독립변인을 처치하였다

독립변인 처치를 위한 1단계에서는 성유사범주에 남녀 피험자들을 할당하기 위해 가상장면(외계의 혹성)의 오리엔탈족(남성유사범주)과 아르크족(여자유사범주)이라는 두 개의 가상종족을 제시하고 가상종족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여 성유사범주에 피험자들을 각각 할당하였다. 두 개의 가상범주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 1단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오리엔탈족조건).

<1단계>.....서기 2045년 지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로 행계의 다른 혹성을 찾아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주민중에 한 사람으로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던 중 이 혹성행태는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안드로메다의 한 별에 복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수메르’입니다. 이 별에는 태양과 성격, 초르몬체계가 서로 생물학적으로 다른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라는 두 종족이 종족별로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별에 복시착한 지구이주민들은 이곳의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중에서도 오리엔탈족이 사는 지역에 정착한 지구 이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실제 남자 피험자들은 남성유사범주인 오리엔탈족에 할당하는 조건에서는 시나리오에서 오리엔탈족, 반면에 여성유사범주인 아르크족에 할당하는 조건에서는 종족을 아르크족에 정착한 지구이주민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 두 종류의 성유사범주에 피험자를 각각 할당하였다.

성역할맥락화조건과 비맥락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기 위해 첫째, 성역할부여 여부에 따라 두 집단을 각각 처치하였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 두 종족이 통합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결혼이었고 결혼 후, 오리엔탈족은 지구에서 말하 남편의 역할을 맡게 되는 반면에 아르크족은 아내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여 성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비해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통합하기 위해 서로 상호이해와 양보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여 성역할맥락화조건과 달리 특정한 역할관계를 부여하진 않았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성역할맥락화조건)의 오리엔탈족-남편역할조건)는 다음과 같다.

<2단계>...라거 핵전쟁이 난 이후로 두 종족은 방사능 오염이 안된 지역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번의 대기환경의 변화로 오염지역의 확대로 두 종족의 통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두 종족의 통량을 위해 선택할 최선의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처럼 생물학적인 성(남자와 여자)이 없기 때문에 성에 따라 결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탈족은 지구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아르크족은 아내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두 종족의 통량을 위해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은 서로의 배우자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선정하면 결혼에서 당신은 남편이 되고 아르크족은 당신의 아내가 됩니다. 라거 역사에서 볼 때, 배우자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지만, 만약 잘못할 경우에는 가정과 개인이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역할에 맥락화된 지각 여부를 조작하기 위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먼저 상대집단을 당신의 배우자가 될 것으로 예견시키고, 이 게임의 목적은 배우자 선택시 당신의 인물과악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될 10명의 인물들중 당신의 배우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였다. 즉, 인물 선택시에는 오리엔탈족중 남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과 아르크족중 아내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각각 한명씩 선택해야 한다고 하여 성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을 하도록 조작하였다. 이에 비해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이 게임의 목적을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통합에서 두 종족간의 상호이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상호이해를 위해 당신의 인물과악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 후,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성역할에 몰입시키기 위해 5명의 오리엔탈족 신랑감 후보자중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번호와 5명의 아르크족 신부감 후보자중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번호를 각각 적게 하였다. 반면에 비맥락화조건에서는 특정 역할없이 단지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한 사람으로서 5명의 오리엔탈족 인물들과 다른 5명의 아르크족 인물들중 각각 당신의 마음에 가장 드는 한명의 인물번호를 각각 적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지시문과 제시된 시나리오의 다음과 같다(성역할맥락화 조건의 오리엔탈족-남편역할 조건).

<3단계>이 게임에서는 당신의 배우자 선택시 필요한 인물과악능력을 테스트하기로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연습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뒷장에 있는 아르크족 5명의 인물을 보고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먼저 판단해 보십시오(5분). 그 중에서 최상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당신의 배우자로 마음속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과 같이 남편역할을 맡게 될 오리엔탈족 5명의 인물을 보고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또한 판단해 보십시오(5분). 그리고 이들 인물중에서 당신을 제1하고 남편감으로서 최적격자 한명을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당신이 명심할 것은 연습게임에서도 이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게임전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수계산은 이들 10명에 대한 추후지문에서 이들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게임전수가 높은 사람은 식현참가전수에서 보너스전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전수를 받는지의 여부는 1주일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셋째, 주어진 역할에 몰입시키기 위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각각 5가지씩 적게 하였다. 즉,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오리엔탈족(남편)과 아르크족(아내)이 통합을 한 후, 해야 할 일을 항목으로 각각 5가지씩 적게 한 반면에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통합을 한 후 해야 할 일을 각각 5가지씩 적게 하였다.

4. 절차

피험자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피험자들을 실험조건에 따라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연구목적은 가장장면에서 가상인물들에 대한 '당신의 인물파악능력 게임'이라고 간단히 소개한 뒤, 그런 뒤, 앞에서 제시된 3단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내용이 달랐다. 독립변인 처치는 각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들을 피험자들이 각각 읽게 하여 이루어졌다(5분). 각 조건별 시나리오의 위에서 밑줄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하였다. 독립변인 처치가 끝나면 각 조건별 각 종족(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별로 할일 5가지를 적게 하여 역할 몰입처치를 하였다. 각 인물들에 대한 인물화와 인물의 성격특성정보를 제시하였다.

인물정보의 제시는 실제 연습게임에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습게임을 위해 인물파악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연습에서 실제 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이 인물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여 제시된 정보를 가능한 기억하게 하였다. 실제 이 단계에서 사용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연습게임입니다. 이제 오리엔탈족 5명과 아르크족 5명의 인물들에 대해 그들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씩 파악해 주십시오. 이들 인물파악내용은 게임의 다음 단계에서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10분이 경과하면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이 종이를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지시문을 읽은 뒤, 지시문 아래 제시된 10명의 인물정보(그림 1 참조)를 5분에 걸쳐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5분). 그런 후, 실제 주어진 특정역할에서 대상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 역할매락조건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서 각각 5분에 걸쳐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 10명의 인물들 중 한명을 마음속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각 인물들에 대해 제시된 정보는 각 인물의 얼굴특징을 생략한 인물화(머리모양, 얼굴윤곽, 귀모양, 어깨선)와 각 인물의 번호, 종족, 이름(오리엔탈족의 이름은 ABCDE로, 아르크족의 이름은 가,나,다,라,마), 성격특성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그런 후, 오리엔탈족 5명의 인물과 아르크족 5명의 인물중 최상의 신랑감과 최고의 신부감을 각각 한명씩 선택하게 하여 인물의 번호를 적게 하였다. 인물들에 대한 특성파악시간인 10분이 경과되면 시나리오와 인물의 정보제공지를 모든 피험자들에게서 동시에 회수하였다.

인물파악시간이 끝나면, 자리정돈을 한 후, 5분뒤에 사후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사후질문지에서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10명의 인물들과 각 인물당 3가지씩 총 30개의 성격특성을 제공하고 인물과 성격특성을 매칭하는 과제를 하게 하였다. 사후질문지의 구성은 질문지 상단에 지시문이 제시되었고 설문지 우측 편에는 앞에서 제시된 인물들의 인물화와 인물번호가 수직으로 제시되었다. 질문지 좌측편에서는 30개의 성격특성형용사를 수직으로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되었다. 대응과제는 우측의 인물들의 번호를 30개의 형용사 옆에 있는 괄호안에 10명의 인물들의 번호중 하나를 기입하는 것이었다(예, 1. 신뢰롭다-인물()의 특성). 사후 검사지에서 대응과제를 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제약을 두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사후 질문지 완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정도였다. 피험자들이 과제를 모두 마치면 질문지를 회수하고 이 연구에 관한 목적과 실험처치를 위한 절차에 대해 해명하였다.



인물 10.
이름: 마
종족: 아르크족
성격특성: 모험적인
인정이 많은
지치있는



인물 5.
이름: 이이
종족: 오리엔탈족
성격특성: 이해심이 많은
사실적인
과묵한

그림 1. 연구 1에 사용된 오리엔탈족 인물(인물5)과 아르크족 인물(인물10)의 정보와 특성

5. 실험재료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서 피험자들을 가상의 범주에 할당하기 위해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라는 두 개의 가상범주를 사용하였다. 가상 장면의 특성에서 두개의 가상범주를 조작하기 위해 Hoffman과 Hurst(1990)가 사용한 명칭을 수정하여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으로 하였다. 오리엔탈족은 남성유사범주로, 아르크족은 여성유사범주로 각각 조작되었다.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인물들은 각각 5명씩 10명의 인물을 제시하고 10명의 인물이 가진 정보와 인물화는 각각 다르게 제시되었다. 각 인물들에 대해 제시된 정보는 그림 1과 같다.

10명의 인물화는 가로 2.5cm, 세로 2.5cm의 사각형 틀안에 얼굴윤곽, 머리모양, 어깨, 목선,

귀를 그린 형태로 제시 되었으나 얼굴의 세부특징(눈,코,입)은 생략된 형태였다. 제시된 인물화에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각기 다른 종족(범주)임을 나타내기 위해 귀모양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오리엔탈족은 귀의 위쪽이 뾰족한 모양(당나귀 귀모양)으로 제작되었고, 아르크족은 양쪽이 모두 뾰족한 모양(초승달 모양)으로 제작하여 제시되었다. 두 종족의 또다른 특징은 턱선, 목, 어깨모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유사범주인 오리엔탈족은 공통적으로 대체로 턱선이 각지고, 목이 굵고, 어깨가 넓은 특징을 가진 전형적인 남성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제작되었고, 여성유사범주인 아르크족은 대체로 턱선이 부드럽고, 목이 가늘고, 어깨가 좁은 특징을 가진 전형적으로 여성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유사범주의 조작과 인물화에 제시된 정보와 그림은 Hoffman과 Hurst(1990)이 사용한 것에서 응용되었다.

10명의 인물의 제시 순서는 오리엔탈족 A를 인물 1번으로 하고 아르크족 마를 인물 10번으로 하였다. 제시된 인물의 성격특성정보는 중립문항(예, 매혹적이다)1개, 주도문항(예, 용감하다)1개, 친화문항(예, 따뜻하다)1개의 3가지 특성을 각 인물당 제시하였다. 사용된 특성정보 형용사의 선택은 Hoffman과 Hurst(1990)가 선정한 형용사들을 10개씩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사용된 특성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각 인물당 주도특성, 친화특성, 중립특성의 제시순서는 무선적으로 하였다.

표 1. 각 인물당 제시된 소속범주, 인물번호(이름), 성격 특성 목록

범주	인물번호 (이름)	성격특성		
		주도특성	친화특성	중립특성
오리엔탈족	인물1(에이)	주장적이다	따뜻하다	신뢰롭다
	인물2(비이)	결단력있다	동정적이다	예술적이다
	인물3(시이)	박력있다	사려깊다	매혹적이다
	인물4(다이)	강압적이다	도움을 잘 준다	창조적이다
	인물5(이이)	과묵하다	이해심이 많다	사실적이다
아르크족	인물6(가)	자신감있다	친절하다	홍분하기 쉽다
	인물7(나)	야심적이다	알뜰하다	호감이 간다
	인물8(다)	담대하다	순종적이다	상상력있다
	인물9(라)	능동적이다	감정이 풍부하다	행복하다
	인물10(마)	모험적이다	인정이 많다	재치있다

6. 종속변인

범주내 오류량과 범주간 오류량 : 정보의 회상에서 보이는 고정관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10명의 인물과 이들 인물들의 특

성으로 제시된 특성형용사 30개를 대응하는 과제에서 범주내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여기서 고정관념 효과는 정보의 회상에서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지만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정도로 하였다. 범주내 오류량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가지 유형은 남성유사범주내에 범하는 오류량(MM오류량)으로 오리엔탈족의 인물특성을 같은 오리엔탈족 다른 인물의 특성으로 잘못 기억하는데서 오는 오류량을 말한다. 다른 한 유형은 여성유사범주내에서 범하는 오류량(FF오류량)으로 아르크족의 특성을 같은 아르크족의 다른 인물의 특성으로 잘못 기억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말한다. MM오류량과 FF오류량을 합해서 범주내 오류량으로 하였다.

범주간 오류량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가지 유형은 남성유사범주에 있는 인물의 특성을 여성유사범주의 인물의 특성으로 회상할 때에 나타나는 오류량(MF오류량)이다. 즉,

표 2. 성역할매력화와 비매력화 조건별 전체문화에서의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의 평균(SD)

조건	가상종족범주	성별	범주내오류량		범주간 오류량	
			MM(남->남)	FF(여->여)	MF(남->여)	FM(여->남)
성역할 매력화	오리엔탈	남(n=26)	*4.88(1.99)	4.81(1.60)	3.35(1.92)	3.31(1.85)
		여(n=30)	4.17(2.48)	3.10(2.92)	2.00(1.76)	1.83(1.66)
		전체(n=56)	4.50(2.27)	3.89(2.53)	2.63(1.94)	2.52(1.89)
아르크	아르크	남(n=24)	4.88(2.36)	4.88(2.42)	2.54(1.56)	2.79(1.77)
		여(n=27)	4.41(2.74)	3.74(2.64)	1.48(1.09)	1.74(1.10)
		전체(n=51)	4.63(2.55)	4.27(2.58)	1.98(1.42)	2.24(1.53)
비매력화	오리엔탈	남(n=29)	4.10(2.20)	3.62(1.68)	3.21(1.93)	3.28(2.15)
		여(n=23)	3.26(1.98)	3.17(2.23)	2.48(1.47)	2.65(1.72)
		전체(n=52)	3.73(2.13)	3.42(1.93)	2.88(1.77)	3.00(1.98)
아르크	아르크	남(n=25)	3.72(1.49)	2.60(2.40)	2.56(2.20)	2.60(2.02)
		여(n=23)	2.87(1.66)	3.52(2.86)	2.87(1.87)	2.96(1.80)
		전체(n=48)	3.31(1.61)	3.04(2.64)	2.71(2.03)	2.77(1.90)

*점수가 클수록 오류량이 큰 것을 의미한다.

오리엔탈족 인물의 특성을 아르크족의 인물특성으로 회상할 때에 나타나는 오류량이다.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전자와 반대로 여성유사범주에 있는 인물의 특성을 남성유사범주의 인물특성으로 기억할 때의 오류량(FM오류량)이다. 즉, 아르크족 인물의 특성을 오리엔탈족의 인물특성으로 회상할 때의 오류량이다. MF오류량과 FM오류량을 합해서 범주간 오류량으로 하였다. 오류량의 계산은 피험자당 정보의 회상에서 인물과 특성을 잘못 대응하는 데서 나타나는 MM, FF, MF, FM의 4가지 유형에서 보이는 오류의 수를 평균값으로 하여 변량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라 범주내 정보와 범주간 정보의 회상에 있어서 오류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문항(중립문항, 주도문항, 친화문항)에서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른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을 분석하였다(표 3). 가정에 따르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는 즉, 성고정관념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유사범주, 성별을 피험자간변인으로 하고 오류유형과 대상을 피험자내변인으로 한 5원변량분석결과에서 성유사범주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남성유사범주인 오리엔탈족과 여성유사범주인 아르크족의 범주할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특성을 가진 범주에 할당되느냐, 남성특성을 가진 범주에 할당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범주와 성별에 따른 2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유사범주와 피험자 성별이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5원변량분석결과에서 유사범주와 관련된 2원 혹은 3원 상호작용효과중 어떠한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이후 결과분석에서는 유사범주를 생략한 평균표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3에서는 표 2의 유사범주에 따른 구분을 생략한 집단별 오류 유형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표 3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변인으로 하고 범주내/범주간 오류유형과 대상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주간/범주내오류량의 주효과($F(1,203)=$

표 3.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별 전체문항에서의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의 평균(SD)

조건	성 별	범주내오류량		범주간 오류량	
		MM(남->남)	FF(여->여)	MF(남->여)	FM(여->남)
성역할 맥락화	남(n=50)	*4.88(2.15)	4.85(2.08)	2.96(1.79)	3.06(1.80)
	여(n=57)	4.28(2.57)	3.40(2.79)	1.75(1.48)	1.79(1.40)
	전체(n=107)	4.56(2.38)	4.07(2.56)	2.31(1.76)	2.38(1.73)
비맥락화	남(n=54)	3.93(2.07)	3.15(2.05)	2.91(2.06)	2.96(2.05)
	여(n=46)	3.07(1.82)	3.35(2.47)	2.67(1.74)	2.80(1.79)
	전체(n=100)	3.53(2.01)	3.24(2.24)	2.80(1.91)	2.89(1.93)

93.76, $p < .01$)가 유의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볼 때 범주내오류량은 평균 3.86인데 비해 범주간 오류량은 평균 2.60으로 나타나 범주간 오류량에 비해 범주내 오류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내/범주간오류량의 이런 차이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역할 맥락집단에서 살펴보면 범주내오류량은 평균 4.32, 범주간 오류량은 평균 2.35로 두 오류량의 유형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비맥락화집단에서는 범주내 오류량은 3.39, 범주간 오류량은 평균 2.85로 나타나 이런 경향이 감소하였다. 4원 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과 오류유형간의 2원상호작용효과 $F(1, 203) = 30.61$, $p < .01$)가 유의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 맥락화조건이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맥락화조건이 고정관념적 처리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4원 변량분석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주효과 $F(1, 203) = 12.18$, $p < .01$)가 유의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3.59의 오류량을 보인 반면에 여자는 2.89의 오류량을 보여, 남자에 비해 여자가 오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이 비맥락화집단(남자오류량 평균 3.94, 여자오류량 평균 2.81)에 비해 성역할 맥락화집단(남자오류량 평균 3.24, 여자오류량 평균 2.98)이 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에서 집단 \times 성별의 2원상호작용효과 $F(1, 203) = 4.71$, $p < .05$)가 유의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또한 집단 \times 성별 \times 대상의 3원상호작용효과 $F(1, 203) = 7.43$, $p < .01$)가 유의하였다. 성역할 맥락화조건에서는 판단자 남자는 유사범주중 남자유사대상(평균 3.92)에 비해 여자유사대상

(3.98)에 대해 오류를 많이 범하는 반면에 판단자 여자는 여자유사범주(평균 2.60)에 비해 남자유사범주(평균 3.01)에 대해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성역할 맥락화조건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남자는 여자유사대상(3.05)에 비해 남자유사대상(평균 3.42)에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남자유사범주(평균 2.87)에 비해 여자유사범주(평균 3.08)에 대해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역할 맥락화조건에서는 판단자 남자, 여자 모두 내집단보다 외집단대상에 대해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외집단대상보다 내집단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 맥락화조건에서는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는 고정관념 처리 효과로 해석된다.

표 4에서는 성역할 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라 성범주 맥락과 관련된 특성과 비관련된 특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주 맥락과 무관한 특성인 중립특성과 관련된 특성(주도성 문항과 친화성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성역할 맥락화조건은 비맥락화조건보다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나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성고정관념 처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향이 비관련 문항에 비해 관련 문항에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표 4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관련 특성(중립 문항)과 관련 특성(주도 특성 문항과 친화 특성 문항)을 각각 구분하여 범주내/범주내 오류량을 분석하였다.

표 4.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별 관련차원과 비관련차원에서의 범주내/범주내 오류량의 평균(SD)

조건	성별	비관련차원(중립특성)				관련차원(주도, 친화특성)			
		범주내오류량		범주간오류량		범주내오류량		범주간오류량	
		MM	FF	MF	FM	MM	FF	MF	FM
성역할 맥락화	남(n=50)	1.20(.83)	1.50(1.10)	1.10(.94)	.74(.83)	1.62(.99)	1.67(.76)	.93(.66)	1.16(.69)
	여(n=57)	1.07(.99)	1.21(1.19)	.54(.65)	.33(.51)	1.35(.93)	1.10(.96)	.61(.67)	.73(.59)
	전체(n=107)	1.13(.91)	1.35(1.15)	.80(.86)	.52(.72)	1.48(1.04)	1.36(.91)	.76(.62)	.93(.67)
비맥락화	남(n=54)	.94(.82)	1.19(1.10)	.88(.93)	.65(.74)	1.32(.83)	.98(.68)	1.01(.76)	1.16(.82)
	여(n=46)	.50(.68)	1.15(2.47)	1.00(.98)	.46(.71)	1.09(.88)	1.10(.89)	.84(.63)	1.17(.82)
	전체(n=100)	.74(.79)	1.17(1.10)	.94(.98)	.56(.73)	1.22(.86)	1.04(.78)	.93(.71)	1.17(.82)

표 4의 평균을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문항유형과 오류유형, 대상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5원변량분석한 결과에서 문항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203)=8.40, p<.01$). 표 4의 평균을 살펴보면 비관련문항(평균=.92)에 비해 관련문항(평균=1.12)에서 오류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에서 문항유형x오류유형의 2원상호작용효과($F(1,203)=6.08, p<.01$)가 유의하였다. 평균을 살펴보면 범주내 오류량과 범주간 오류량 모두 비관련문항보다 관련문항에서 오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내 오류량을 보면 비관련문항(평균 1.10)보다 관련문항(평균 1.28)에서 오류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범주간 오류량을 보면 역시 비관련문항(평균 .71)보다 관련문항(평균 .94)에서 오류량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 모두 비관련문항보다 관련문항에 정보회상에서 방해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집단x문항유형의 2원상호작용효과가 ($F(1,203)=5.08, p<.05$) 유의하였다. 비관련문항에서 살펴보면 성역할맥락화조건(평균 1.31)과 비맥락화조건(평균 1.31)의 오류량은 같은 반면에 관련문항에서는 성역할맥락화조건(평균1.43)이 비

맥락화조건(평균 1.74)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관련문항과 관련문항간의 차이가 적는데 비해 비맥락화조건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건과 문항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볼 때 비관련(평균 .95)과 관련문항(평균 1.13)의 차이가 적는데 비해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비관련(평균 .67)과 관련문항(평균 1.09)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진 않았다.

또한 변량분석에서 집단x문항유형x오류유형의 3원상호작용효과($F(1,203)=8.00, p<.05$)가 유의하였다. 먼저 비관련문항에서 나타난 평균을 살펴보면 성역할맥락화조건(범주내 오류량 평균=1.24, 범주간오류량평균=.66, 차이=.58)이 비맥락화조건(범주내 오류량 평균=.59, 범주간 오류량 평균=.75, 차이=.16)보다 성고정관념의 차이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문항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맥락화조건(범주내 오류량 평균=1.42, 범주간 오류량 평균=.85, 차이=.57)이 비맥락화조건(범주내 오류량 평균=1.13, 범주간 오류량 평균=1.05, 차이=.08)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관련문항보다 관련문항에서 범

주내 오류량이 범주간 오류량보다 증가하며 이런 경향이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증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고정관념적 처리가 비관련차원에서 보다 범주맥락과 관련된 차원에서 더 많이 일어나며, 이런 경향이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더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특성기억에서 성고정관념 처리의 정도는 성역할맥락화조건이 비맥락화조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성역할맥락화조건이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였다(표 3). 이 결과는 단순범주화와 역할부여에 의한 범주화조건이 고정관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고정관념의 원인을 단순범주화에서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한 Tajfel (1969)의 범주화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성역할맥락화조건과 비맥락화조건의 성고정관념은 성고정관념과 관련차원(주도와 친화문항)이 비관련차원(중립문항)에서보다 성고정관념 처리가 더 증가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표 4). 성고정관념이 Tajfel의 설명처럼 단순범주화에서 일어난다면 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관련차원에서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결과 또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의 원인이 특정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의 산물임을 주장하는 역할맥락화이론(1994)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성유사범주를 사용하여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이 더 증가하여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연구1에서 사용한 성유사범주는 피험자들이 기존에 가진 성도식이 활성화한데서 나타난 효과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성도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상범주를 사용하여 비맥락화과 성역할맥락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고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만약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가상범주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이 증가한다면 본 연구의 가정대로 특정한 성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이 성고정관념의 원인임을 거듭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연구1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되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유사범주 대신 독립특성을 가진 가상종족범주에서 비맥락화과 성역할맥락화조건을 조작하였을 때 성역할맥락화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정보의 회상에서 범주간 오류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향이 판단차원이 성고정관념과 비관련차원(중립문항)보다 관련차원(주도문항과 친화문항)일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1. 피험자

H대학교 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228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221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는 남자 50명, 여자 52명의 102명이 참가하였고,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남자 55명, 여자 60명의 115명이 참가하였다.

2. 설 계

본 연구의 설계는 조건(2: 성역할맥락화/비맥락화) * 가상종족범주(오리엔탈족/아르크족) * 성별(2: 남자/여자)로 하였다. 연구2에서 사용된 비맥락화과 성역할맥락화조건의 조작절차는 연구1과 동일하였다.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두 개의 남성과 여성특징을 가지지 않은 중립특징을 가진 가상종족범주(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에 피험자를 할당하여 단순 범주화한 조건을 말한다. 반면에 성역할맥락화조건은 단순 범주화 후, 각각 성역할(남편과 아내)을 부여하여 성역할에서 상대집단을 지각하도록 조작한 조건을 말한다.

3. 독립변인 처치

피험자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연구목적을 가상장면에서 '당신의 인물과약능력 테스트 게임'이라고 간단히 소개하였다. 독립변인을 처치를 위한 단계와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나 단지 각 역할범주에 포함된 인물의 특성이 성의 특징이 없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가상범주를 사용한 것

이 연구1과 달랐다.

4. 질 차

연구 2의 전체 연구절차는 연구1과 같다.

5. 실험재료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서 피험자들을 가상범주에 할당하기 위해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가상범주에 속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인물들 5명씩 10명의 인물에 대한 정보는 연구 1과 동일하였지만, 단지 두 개의 범주, 즉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이 각기 다른 종족(범주)임을 나타내기 위해 귀모양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1과는 반대로 오리엔탈족은 귀의 위쪽이 뾰족한 모양(초승달 귀모양)으로 제작되었고, 아르크족은 양쪽이 모두 뾰족한 모양(당나귀 귀모양)으로 제작하여 제시되었다(그림 2 참조). 또한 연구 1과 달리 두 종족의 인물의 특성이 남성과 여성적 특성을 제거한 중립적인 특성으로 제작하였다. 즉, 두 종족은 어깨와 목선은 두 범주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얼굴모양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얼굴모양에서 오리엔탈족 인물 5명은 공통적으로 역삼각형의 얼굴모양을 가진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었고 아르크족 인물 5명은 공통적으로 정삼각형의 얼굴모양을 가진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었다(그림 2참조).

10명의 인물의 제시순서와 인물들의 성격특성 정보는 연구 1과 모두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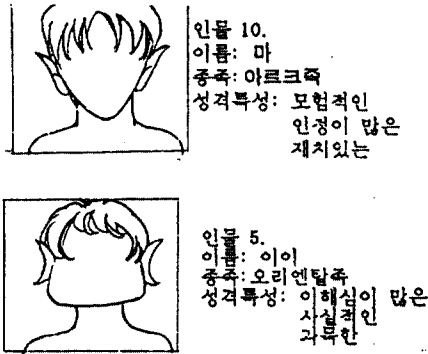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2에 사용된 오리엔탈족 인물(인물5)과 아르크족 인물(인물10)의 정보와 특성

6. 종속변인

범주내 오류량과 범주간 오류량 : 정보의 회상에서 보이는 고정관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10명의 인물과 이들 인물들의 특성으로 제시된 특성형용사 30개를 서로 대응하는 과제에서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나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할수록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구1과 같이 범주내 오류량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가지 유형은 오리엔탈족 인물의 특성을 같은 오리엔탈족 다른 인물의 특성으로 잘못 기억하는데서 오는 오류량(OO오류량)과 다른 한가지 유형은 아르크족의 특성을 같은 아르크족의 다른 인물의 특성으로 잘못 기억하는데서 오는 오류량을 말한다(AA오류량). OO오류량과 AA오류량을 합해서 범주내 오류량으로 하였다. 범주간 오류량 또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가지 유형은 오리엔탈족 범주에 있는 인물의 특성을 다른 아르크족 범주의 인물의 특성으로 기억할 때의 오류량이다(OA오류량). 다른 한가지 유형은 전자와 반대로 아르크족 인물의 특성을 다른 오리엔탈족 범주의 인물의 특성으로 기억할 때의 오류량이다(AO오류량). OA오류량과 AO오류량을 합해서 범주간

표 5.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별 전체문항에서의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의 평균(SD)

조 건	가상종족범주	성 별	범주내오류량		범주간 오류량	
			OO(오->오)	AA(아->아)	OA(오->아)	AO(아->오)
성역할 맥락화	오리엔탈	남(n=25)	*4.64(1.58)	3.60(1.87)	4.08(2.06)	4.20(1.98)
		여(n=27)	5.52(2.29)	4.63(2.51)	3.26(1.72)	3.37(1.45)
		전체(n=52)	5.10(2.01)	4.13(2.27)	3.65(1.92)	3.77(1.76)
	아르크	남(n=25)	4.88(2.45)	3.96(2.19)	4.36(2.41)	4.80(2.61)
		여(n=25)	4.72(2.51)	3.84(2.29)	3.60(2.50)	3.96(2.17)
		전체(n=56)	4.80(2.46)	3.90(2.22)	3.98(2.46)	4.38(2.42)
비맥락화	오리엔탈	남(n=26)	4.64(2.23)	4.16(1.89)	4.92(2.20)	4.96(2.11)
		여(n=30)	4.29(2.22)	4.16(2.22)	4.03(2.59)	3.97(2.12)
		전체(n=63)	4.45(2.22)	4.16(2.06)	4.43(2.44)	4.41(2.16)
	아르크	남(n=29)	4.86(1.88)	4.59(1.80)	5.45(1.62)	5.00(2.10)
		여(n=30)	4.35(2.03)	3.82(2.08)	4.32(1.77)	4.09(1.88)
		전체(n=63)	4.59(1.96)	4.17(1.98)	4.84(1.78)	4.51(2.02)

*점수가 클수록 오류량이 큰 것을 의미한다.

표 6.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별 전체문항에서의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의 평균(SD)

조 건	성 별	범주내오류량		범주간오류량	
		OO(오->오)	AA(아->아)	OA(오->아)	AO(아->오)
성역할 맥락화	남(n=50)	4.76(2.05)	3.78(2.02)	4.22(2.25)	4.50(2.31)
	여(n=52)	5.13(2.41)	4.25(2.42)	3.42(2.12)	3.65(1.84)
	전체(n=102)	4.95(2.24)	4.02(2.23)	3.81(2.20)	4.07(2.12)
비맥락화	남(n=55)	4.76(2.04)	4.39(1.84)	5.20(1.91)	4.98(2.09)
	여(n=60)	4.32(2.11)	3.98(2.14)	4.18(2.19)	4.03(1.98)
	전체(n=115)	4.52(2.08)	4.17(2.01)	4.65(2.12)	4.46(2.08)

오류량으로 하였다.

오류량의 계산은 피험자당 정보의 회상에서 인물과 특성을 잘못 대응하는데서 나타나는 OO, AA, OA, AO의 4가지 타입에서 보이는 오류의 수를 평균값으로 하여 이를 변량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라 범주내 정보와 범주간 정보의 회상에 있어서 오류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문항(중립문항, 주도문항, 친화문항)에서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른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을 분석하였다(표 5). 가정에 따르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범주간 오류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범주내 오류량은 감소하여 고정관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가상종족범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오류유형과 대상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5원변량분석 결과에서 범주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의 범주할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주와 관

련된 2원상호작용효과 혹은 3원상호작용효과중 어떤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오리엔탈족 범주에 할당되느냐, 아르크족 범주에 할당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상범주구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1과 일치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이후의 결과분석에서는 연구 1과 같이 가상범주구분을 생략한 평균표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6에서는 표 5의 가상범주구분을 생략한 집단별 오류유형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표 6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범주내/범주간 오류유형과 대상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x오류유형간의 2원상호작용효과 [$F(1,217)=5.74, p<.02$]가 유의하였다. 표 6의 결과에서 볼 때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범주내 오류량(평균 4.49)이 범주간 오류량(평균 3.94)보다 더 증가하는 반면에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반대로 범주내 오류량(평균 4.34)이 범주간 오류량(평균 4.56)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 1의 성유사범주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중립특성을 가진 가상범주를 사용할 경우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고정관념이 일어난 반면에 비맥

락화조건에서는 고정관념이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1에서 성유사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단순범주화조건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과 같이 역할부여에 따른 고정관념 처리가 증가하는 결과가 Tajfel(1969)의 범주화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임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2에서 중립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 단순범주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 또한 Tajfel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정한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 연구2의 결과에서도 지지된 것이다.

4원변량분석결과에서 대상 주효과 [$F(1,217)=12.24, p<.001$]가 유의하였다. 평균에서 볼 때 대상 오리엔탈족에 대한 오류량(평균 4.48)이 아르크족에 대한 오류량(평균 4.18)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대상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연구 2의 결과에서 대상주효과가 나타난 것은 실험자극에서 볼 때 아르크족 인물에 비해 오리엔탈족의 인물들의 특성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비슷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상x오류유형간의 2원상호작용효과 [$F(1,217)=8.92, p<.01$]가 유의하였다. 평균을 살펴보면 범주내 오류량은 오리엔탈족(평균 4.73)이 아르크족(평균 4.09)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범주간 오류량은 오리엔탈족(평균 4.23)과 아르크족(평균 4.26)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x대상x오류유형간의 3원상호작용효과 [$F(1,217) = 5.07, p<.05$]가 유의하였다. 평균에서 살펴보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범주내 오류량은 오리엔탈족이 4.95, 아르크족은 4.02로 나타난 반면에 범주간

오류량은 오리엔탈족이 3.81, 아르크족이 4.07로 나타났다. 비맥락화조건에서는 범주내 오류량은 오리엔탈족이 4.52, 아르크족이 4.17로 나타난 반면에 범주간 오류량은 오리엔탈족은 4.65, 아르크족은 4.4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범주간 오류량에서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간의 오류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역할맥락화조건 오류량 차이 평균 .16, 비맥락화조건 오류량 차이 평균 .19). 그러나 범주내 오류량에서는 오리엔탈족과 아르크족간의 오류량의 차이가 비맥락화조건(평균 .35)보다 성역할맥락화조건(평균 .93)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는 연구 1에서와 같이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에 따라 판단차원이 성범주와 관련된 특성과 비관련된 특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주맥락과 무관한 특성인 비관련특성(중립특성)과 관련된 특성(주도성 문항과 친화성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표 7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관련특성과 관련특성을 구분하여 범주간/범주내오류유형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성역할맥락화조건은 비맥락화조건보다 범주내 오류량은 증가하나 범주간 오류량은 감소하는 고정관념처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향이 비관련차원에 비해 관련차원에서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표 7의 평균을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문항유형과 오류유형, 대상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5원변량분석결과에서 문항유형에 따른 주효과 [$F(1,217) = 42.75, p<.01$]가 유의하였다. 평균을 살펴보면 관련문항에서의 오류량(평균 1.59)이 중립문항에서의 오류량(평균 1.31)

표 7. 성역할맥락화와 비맥락화조건별 관련차원과 비관련차원에서의 범주내/범주간 오류량의 평균(SD)

조건	성 별	비관련차원(중립문항)				관련차원(주도+친화문항)			
		범주내오류량		범주간오류량		범주내오류량		범주간오류량	
		OO	AA	OA	AO	OO	AA	OA	AO
성역할	남(n=50)	1.24(.94)	1.26(1.01)	1.60(1.12)	1.26(1.08)	1.62(.85)	1.26(.83)	1.31(.82)	1.62(.79)
맥락화	여(n=52)	1.40(1.05)	1.42(1.11)	1.29(1.05)	1.08(1.06)	1.88(.89)	1.41(.81)	1.07(.73)	1.29(.65)
	전체(n=102)	1.32(1.00)	1.34(1.06)	1.44(1.10)	1.17(1.07)	1.75(.87)	1.33(.82)	1.19(.78)	1.45(.74)
비맥락	남(n=55)	1.17(1.00)	1.39(1.05)	1.81(1.08)	1.39(.90)	1.65(.78)	1.50(.71)	1.68(.76)	1.79(.81)
	여(n=60)	1.02(.96)	1.26(.99)	1.42(.98)	1.12(.94)	1.57(.78)	1.36(.78)	1.38(.86)	1.45(.75)
	전체(n=115)	1.08(.98)	1.32(1.02)	1.60(1.04)	1.24(.93)	1.61(.78)	1.42(.76)	1.53(.83)	1.61(.79)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 1의 결과에서 비관련문항보다 관련문항에서 오류량이 증가한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항유형x오류유형간의 2원상호작용효과 [$F(1,217) = 45.1, p < .05$]가 유의하였다. 범주내 오류량과 범주간 오류량이 비관련문항일 경우보다 관련문항일 경우에 오류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내 오류량에서 보면 비관련문항(평균 1.26)보다 관련문항(평균 1.53)에서 오류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범주간 오류량에서도 비관련문항(평균 1.36)보다 관련문항(평균 1.44)에서 오류량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또한 연구 1에서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 오류량 모두 비관련차원보다 관련차원에서 증가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x 문항유형의 2원상호작용효과 [$F(1,217) = 5.08, p < .05$]가 유의하였다. 비관련문항에서 살펴보면 성역할맥락화조건(평균 1.31)과 비맥락화조건(평균 1.31)의 오류량이 같은 반면에 관련문항에서는 맥락조건(평균 1.43)이 비맥락화조건(평균 1.74)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관련문항과 관련문항간의 차이(평균 .12)가 적는데 비해 비맥락

화조건에서는 차이(평균 .43)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립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중립문항에서는 성역할맥락화조건과 비맥락화조건이 차이가 없는 반면에 관련문항인 주도성 문항과 친화성 문항에서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 오류량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문항에서 성역할맥락화조건이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오류량이 감소한 것은 성역할부여에서 오는 판단자의 준거와 판단차원이 관련되었을 때 나타나는 기억촉진효과로 해석되어진다. 성역할맥락화조건과 비맥락화조건에 따라 관련특성과 비관련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이 결과 또한 Tajfel(1959)의 범주화이론에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집단 x 문항유형간의 2원상호작용효과는 실제 연구 1에서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이 결과 또한 연구 1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와 달리 집단x문항유형x오류유형간의 3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1에서와 달리 연구 2에서는 단지 집단x문항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2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첫

째, 성유사범주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중립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성역할매락화조건이 비매락화조건보다 고정관념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는 범주간 오류량이 감소하고 범주내 오류량이 증가하는 성고정관념이 나타났으나 비매락화조건에서는 범주간 오류량과 범주내오류량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범주간 오류량이 범주내오류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유사범주를 사용한 연구 1의 결과에서는 비매락화조건보다 성역할매락화조건이 성고정관념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범주를 사용한 연구 2의 결과는 비매락화조건에서는 고정관념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는 고정관념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가설화하였듯이 성고정관념의 원인이 특정 역할관계에 매락화된 지각의 결과임이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성고정관념의 효과는 비매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 더 증가하는 경향이 비관련문항에서 보다 관련문항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관계에 매락화된(몰입된) 지각이 특성기억에서 성고정관념적 처리(범주간 정보와 범주내 정보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량(Taylor 등, 1978))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남녀 성범주의 특징을 가진 성유사범주를 사용하고 연구 2에서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가상종족범주를 사용하였다. 연구 1,

2 모두에서 단순히 범주에 할당하는 조건(비매락화조건)과 남편과 아내라는 상호규정된 역할관계를 부여하여 상대 역할자를 지각하게 한 성역할관계에 매락화된 조건으로 조작하였을 때 성고정관념 처리(범주간 정보의 회상 오류는 감소하고 범주내 정보의 회상 오류는 증가)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기억에서 성고정관념 처리는 비매락화조건보다 역할매락조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에 매락화되면 남녀 범주간 정보는 잘 기억하는 반면에 남녀 범주내 정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하였다. 이런 경향이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이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연구1의 성유사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와 연구 2의 중립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는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 2의 중립범주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비매락화조건에서는 범주간 오류와 범주내 오류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고정관념적 처리는 Tajfel(1959)의 범주화이론에서 주장하였듯이 단순범주화에서 나타난 결과라기 보다는 상호 규정된 역할관계에 매락화된(몰입된) 지각의 효과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의 원인이 특정역할에 매락화된 지각의 산물임을 검증하여 역할매락화이론(1994)이 지지되었다.

둘째, 비매락화조건에 비해 성역할매락화조건에서 성고정관념적 처리가 더 증가하였고 이런 경향이 성고정관념과 비관련차원(중립문항)보다 관련차원(주도성 문항과 친화성 문항)에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맥락화조건에서는 비맥락화조건에 비해 중립특성보다 주도와 친화 특성에서 고정관념 처리가 더 증가하였다. 성유사 범주를 사용한 연구 1에서 관련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처리가 성역할맥락화조건이 비맥락화조건보다 고정관념적 처리가 더 증가하였다. 따라서 성역할에 맥락화되면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고정관념 처리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중립범주를 사용한 연구 2에서는 성역할맥락화조건이 비맥락화조건보다 중립문항에서보다 주도와 친화문항에서 오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상을 단순범주화한 비맥락화조건보다 성역할부여에 의한 성역할맥락화조건이 관련차원에서 고정관념적 처리가 증가하는 결과는 Tajfel의 범주화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성역할 맥락화가 대상의 많은 특성중 관련차원인 주도과 친화특성에서만 고정관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맥락화이론의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Tajfel의 범주화이론에 따르면 대상을 단순히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고정관념적 처리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상을 범주화하게 되면 범주간에서는 두 범주의 차이점이 강조되는 대비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범주내에서는 동화가 일어나는 강조현상 때문에 고정관념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Tajfel의 주장은 Tajfel과 Wilkes(1963)의 선분실험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동화와 대비현상을 Taylor 등(1978)의 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그러나

범주화이론은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체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범주화가 남녀의 많은 특성중 남자를 용감하다, 여자를 부드럽다와 같은 특성으로 지각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갖게 된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Tajfel의 강조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사회심리학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는 과정(process)연구들의 한계이다(Oakes, Haslam & Turner, 1994). 본 연구에서는 Tajfel의 범주화이론이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과정 연구'와 달리 고정관념의 '내용 기원'에 대한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내용의 타당성(validity) 즉, 고정관념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논쟁의 관심은 Eagly와 Steffan(1984), Michael, Teresa 및 Lauren(1996), 의 Hurst와 Hoffman (1990)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Eagly와 Steffan의 주장에 따르면 성고정관념은 남자와 여자가 전통적으로 맡아온 사회적 역할 즉,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가정외의 일, 즉,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반면에 여자는 주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남자는 주로 직업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감하다와 같은 주도적 특성을, 반면에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위해 부드럽다와 같은 친화적 특성이 요구되었다. 이런 남녀의 전통적 역할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곧 남녀의 특성으로 지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성고정관념외에 특정 인종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맡은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는 다른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Feldman, 1972; Smedley & Bayton, 1978; Triandis, 1977). 예를 들어, 유태인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맞은 역할이 각각 '은행가' 혹은 '노예'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역할분포를 관찰에서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성고정관념이 역사적으로 수행해온 그들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에 대해 Hurst와 Hoffman(1990)는 성고정관념은 단지 합리화의 산물이며,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은 성고정관념이 남여가 맡은 사회적 역할분포를 단지 합리화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들은 가상적인 도시에서 city-worker와 homemaker의 역할을 각각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다시 이들 두 역할에서 생물학적 성차를 기술한 조건과 성차가 없게 기술한 조건으로 각각 조작한 뒤 이에 대해 인상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직업 역할을 명시한 조건에서도 역할에 근거한 고정관념이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이 나타난 조건은 생물학적인 성차를 기술한 조건에서 고정관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생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성고정관념이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생물학적 근거가 남여의 성의 차이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결과에서 볼 때 과연 성고정관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화의 결과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연구는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논쟁으로 고정관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남녀의 성역할특성이 개인특성으로 지각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역할특성을 개인 특성으로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핵심기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설명은 이수원의 역할맥락화이론(1994)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역할맥락화이론에 따르면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되면 역할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를 갖고 상대를 지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여러 특성중에서도 역할기대와 일치된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역할기대에 따른 선택적 지각의 결과가 바로 성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성된 기원이며 핵심기제가 될 수 있다.

성고정관념은 모든 남성의 특성을 '부드럽다' 보다는 '용감하다'로 지각하고, 여성의 특성을 용감하다보다는 부드럽다는 특성으로 과잉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지각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과잉일반화하게 되는가? 사실 남성(A)은 용감한 특성뿐만 아니라 여성적 특성(예, 부드럽다)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관계의 맥락에서는 역할기대를 판단준거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용감한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 반면에 다른 특성은 무시된다. 따라서 남성이 용감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성역할관계의 맥락에서는 정확한 지각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역할관계 즉,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볼 때 부모의 눈에 비친 A는 부드럽다, 영리하다로 지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A를 항상 용감하다(성고정관념 내용)로 보는 것은 일종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오류인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특성을 특정 상황에 맥락화하여 지각된 것이 마치 정확히 지각하는 것으로 보는 오류를 Swann(1984)은 '상황기술적 정확성'(circumscribed accuracy)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상황

기술적 정확성은 사람들이 흔히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습관화되어 있는 맥락(남편과 아내)내에서 상호작용목표에 따라 타인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관점이 마치 절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특정역할관계에 맥락화되면 '상황기술적 정확성'으로 인해 개인의 역할행동을 마치 개인행동으로 지각하는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 상황기술적 정확성은 결국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 이해에서 오는 오류의 한 원천중에 하나는 특정한 역할관계의 맥락화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성고정관념적 처리는 결국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특징을 다른 역할관계에서 과잉일반화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와 Hoffman과 Hurst(1990)의 논쟁은 역할맥락화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사실 이 두 관점은 역할맥락화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둘다 틀린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역할관계의 맥락화되어 있을 때에는 Eagly와 Steffan(1984)의 주장처럼 두 남녀의 특성이 각각 남자는 주도적인 반면에 여자는 친화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은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관계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볼 때에는 Hoffman과 Hurst(1990)의 주장처럼 성고정관념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주도적 특성과 친화적 특성은 특정역할관계의 맥락에서 오는 상황기술적 정확성의 지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Eagly와 Steffan의 주장처럼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Hoffman과 Hurst의 주장처럼 단지 합리화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할맥락화이론은 두 연구의 모순된 결과를 하나의 이론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특정 역할관계에 맥락화하면 어떻게 고정관념이 일어나는가? 또한 핵심기제는 무엇인가? 대상 남녀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자신을 남편 혹은 아내라는 특정한 역할에 동일시하게 되고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도 아내 혹은 남편으로 동일시할 것이다(Tajfel & Turner, 1986). 자신을 사회적 정체 즉, 남편과 아내 역할에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그의 개인판단준거가 된다(이해경과 이수원, 1994, 1996). 즉, 남자는 주도적 가치를, 여자는 친화적 가치를 판단준거로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조망축소가 일어난다. 이런 조망축소 상태에서는 모든 대상의 여러 특성중 주도적 가치와 친화적 가치와 같은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할맥락화이론에 따르면 역할기대를 개인의 판단준거로 삼는 즉, 조망축소는 성고정관념 특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핵심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역할맥락화이론의 가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성고정관념의 내용, 즉, 정보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범주화이론을 비맥락조건으로 조작하고 성역할을 부여한 역할맥락화조건으로 조작하여 두 조건에서 성고정관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고정관념이 비맥락화조건보다 역할맥락화조건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역할에 맥락화된 지각이 있어야만 고정관념의 내용이 나타

남을 검증하였다. 또한 고정관념의 내용회상에 있어서 관련차원(주도적 특성과 친화적 특성)과 비관련차원(중립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관련차원에서 성고정관념이 더 증가하였고 이런 경향이 역할맥락조건이 비맥락조건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련차원보다 관련차원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역할에 맥락화되면 역할에서 오는 판단준거(주도가치와 친화가치)가 곧 개인의 판단준거가 되는 조망축소로 인해 자신의 판단준거와 일치된 특성은 더 잘 기억하는 촉진효과가 일어나는 반면에 불일치된 특성은 방해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고정관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Tajfel의 범주화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정관념의 내용이 역할맥락화된 지각의 산물임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역할맥락화이론은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고정관념의 내용기원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자료를 얻음으로서 새로운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직접 검증한 바는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 즉, Eagly와 Steffan(1984)의 연구와 Hoffman과 Hurst(1990)의 연구에서의 논쟁에 대해 역할맥락화이론은 이 두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라는 점이 또한 이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시사점으로서 성 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다른 고정관념의 한 원인은 역할관계에 몰입하여 나타난다는 역할맥락화이론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탈고정관념화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의 핵심내용은 상호

역할관계의 맥락에서 한걸음 떨어져 보는 조망 확대의 처치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할맥락화이론의 가정들중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핵심기제가 조망축소를 가정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고정관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망축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역할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고정관념 예를 들어, 영호남 지역고정관념에 대한 정보처리에서도 역할맥락화이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이론의 한계를 검토하는 연구도 추후에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수원 (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3(1), 1-38.
- 이해경, 이수원 (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집단편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2), 108-123.
- 이해경, 이수원 (1996). 성고정관념의 감소: 재, 탈범주화의 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지* 창간호, 1, 43-62.
- 이해경 (1998). 역할맥락화가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rcuri, L. (1982). Three patterns of social categorization in attributio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271-282.
- Brewer, M. B., Weber, J. G., & Carini, B. (1995). Person memory in intergroup contexts: Categorization versus 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69(1), 29-40.
- Eagly, A. H., & Steffan, V. J.(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735-754.
- Feldman, J. M. (1972). Stimulus characteristics and subject prejudices as determinants of stereotypes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33-340.
- Frable, D. E. & Bem, S. L.(1985). If you are gender schmatic, all members of the opposite sex look ali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459-468.
-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1989). Reducing intergroup bias: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Hoffman, C. & Hurst, N. (1990). Gender Stereotypes :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197-208.
- Katz, D. & Braly, K.(1933). Racial prejudice and racial stereotyp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Michael, C. M., Teresa, P. & Lauren. M. (1996). Status, communality, and agency : Implications for Stereotypes of Gender and oth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25-38.
- Miller, C. T.(1986). Categorization and Stereotyping of men and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502-512.
- Miller, C. T.(1988). Categorization and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reotype, *Social Cognition*, 6, 231-251.
- Oakes, P. H., Haslam, S.A., & Turner, J. C.(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Blackwell, Oxford, U.K. and Cambridge, U.S.A.
- Smeddly, J. W. & Bayton, J. A.(1978). Evaluative race-class stereotypes by race and perceived class of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30-535.
- Swann, W, B.(1984). Quest for Accuracy in Person Perception: A Matter of Pragmatics, *Psychological Review*. Vol.1(9). 457-477.
- Tajfel, H. (1959). Quantitative judgement of in social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0, 16-29.
- Tajfal, H. & Turner, J.(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hip*(PP.7-27). Chicago, IL:Nelson-Hall.
- Tajfel, H. & Wilkes, A. L.(1963). Classification and Quantitative judge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4, 101-114.
- Taylor, S. E. & Falcone, H. T. (1982). Cognitive bases of Streoty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zation and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426-432.
- Taylor, S. E., Fiske, S. T., & Etocoff, N. L. (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36(7), 778-793.

Triandis, H. C. (1977). *Interpersonal behavior*.
Monterey, CA: Brooks/Coles.

Walker, P. & Antaki, C.(1986). Sexual
orientation as a basis for categorization
in recal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 337-339.*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2. Vol. 7, No. 3, 87 - 114

The effect of gender role contextualization on recall of intercategory and intracategory information

Lee, Hae-Gyoung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Cyber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der role contextualization on recall of intercategory and intracategory information. It is hypothesized that contextualized perception than uncontextualized perception on gender role(husband or wife) make more gender stereotype that inter-gender errors(inter-category errors) make less than intra-gender errors(intra-category errors) on traits recall of target person.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Experiment I and Experiment II were conducted. In experiment I and experiment II, After subjects were allocated to two fictional category(to gender analogy category in Experiment I, to neutral category in Experiment II, both uncontextualization condition and role contextualization condition were manipulated, respectively. The uncontextualization condition only was manipulated by allocating two fictional category both Experiment I and Experiment II. In contrast, The role-contextualization condition was manipulated by giving gender role, husband and wife role, respectively. Gender stereotype as dependent variables was measured by inter-category errors and intra-category errors on traits recall of target. In the result, both Experiment I and Experiment II, first, the role-contextualization condition than the uncontextualization condition make more gender stereotype. Second, the role-contextualization condition than the uncontextualization condition make more gender stereotype in relevant traits(agentive traits and communal traits) relative to gender category than irrelevant traits(neutral traits). These hypotheses were confirmed by the given two experimental data. Result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and the content origin in processing of the gender stereotype.